

“암으로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 홀로 외롭게 암과 싸우고 계신 이순복(가명) 어르신 -

어린 시절 어려운 가정형편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 식당 허드렛일, 건축현장 잡역부 등의 일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오신 어르신은 이제 몸도 아프고, 나이도 많아 이런 일조차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하다 손가락 하나를 잃었고, 왼쪽 발도 변형되어 걸음걸이도 힘이 드십니다.

이런 어르신에게 5년 전 더 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후두암 판정을 받으신 겁니다. 후두암으로 말조차 할 수 없게 된 어르신은 어려운 형편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암이 폐까지 전이되었고, 이제 혼자서는 거동도 하실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홀로 외롭게 병마와 싸우고 계신 어르신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 건강과 삶에 대한 희망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관심과 도움이 절실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이순복 어르신의 치료비로 지원되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사용됩니다.

후원문의 : ☎ 02-3396-1004